

ICID 제4차 아시아지역회의의 참가기

ICID 4th Asian Regional Conference

최 중 대*
Choi, Joong Dae

2007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란의 테헤란에서 개최되었던 The 4th Asian Regional Conference and 10th International Seminar on Participatory Irrigation and International History Seminar on Irrigation and Drainage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18개국에서 163명의 외국인과 이란인 740여명 등 약 900여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유만 ICID 부회장과 김태철 충남대 교수, 그리고 필자 등 3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의 특별세션으로 2nd Special Session of Task Force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Asia도 포함되어 있었다. 컨퍼런스 회의장인 IRIB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IICC)는 만년설산인 Alborz산의 산자락에 위치한 아름답고 깨끗하며 테헤란의 부자들이 산다는 지역에 있었다. Conference Center는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다.

이란의 국가, 코란암송을 시작으로 이란 에너지부 차관(IRNCID 의장)의 개회사, ICID 회장인 영국의 Peter Lee 교수의 기조연설, INPIM(International Network on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 회장의 환영사, 이란

의 관개효과를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 그리고 이란 에너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끝으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개회식 축사나 환영사라고 하기 보다는 기조연설에 가까운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들의 축사이고 환영사였다. 에너지부의 차관은 물론 장관도 관개효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신 있게 관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이란의 관개농업분야는 국민총생산의 27%를 차지하고, 관개면적은 전세계적으로 5~6위에 해당할 정도로 넓다고 한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란의 관개농업은 3,300여년 전부터 Qanat(카나트 -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하 관개수로)을 개발하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오랜 관개의 역사와 관개농업의 중요성 때문에 IRNCID는 ICID의 창립시부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가위원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관개시설은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따라 올 수 없을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다. PIM(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은 우리나라와 같이 관개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화된 관개시설을 갖추고 농업활동에 충분한

* 강원대학교 농업공학부 교수(jdchoi@kangwon.ac.kr)

용수를 공급하는 관개시설은 PIM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설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PIM과 관련된 국제회의에는 방관자로 물러서있기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선진화된 기술의 보급과 국가의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예를 들면 “Beyond PIM – Persuing the Higher Degree of Integrated Irrigation Management”와 같은 제목으로 농촌마을의 수리계에서 수리조합, 그리고 한국농촌공사로 이루어지는 관개시설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기조연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수리계나 수리조합은 아주 긴 역사를 갖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효과적이었던 대표적인 PIM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는 “Beyond PIM – The Advancement of Irrigation Systems for Rural Tourism and Agricultural Ecosystem Rehabilitation”과 같은 제목으로 관개조직이 단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에서 이제는 농촌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자연과 공생하기 위하여 농업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발표로 우리나라는 PIM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선진화된 나라로 인식되며 농공학자의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PIM의 가장 큰 문제들은 용수의 확보와 정확한 배분, 그리고 관개시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민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용수의 정확한 배분을 위해서는 물관리 자동화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물관리 기술이 저개발국의 실정에 맞게 응용되어 적용될 수 있다면 PIM 회의에서 관망자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와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료화할 수 있는 주관 기관이나 연구자가 있다면 더욱 쉽게 PIM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개회식 후 오전 세션은 3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나와 허유만 ICID 부회장님은 Hall 1의 Keynote Speaker 세션으로 그리고 김태철 교수님은 Hall 4의 History Seminar Keynote Speaker 세션의 패널(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Hall 1에서는 Reengaging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 the World: Challenges and Options(농업용수 관리의 도전과 옵션), Irrigation and Poverty Alleviation: Pro-Poor Intervention Strategies in Irrigated Agriculture in Asia (관개와 기아해결: 아시아의 빈곤지역의 관개전략), Performance of Irrigation and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 Lessons from FAO's Irrigation Modernization Program in Asia (관개와 참여관개의 이행: 아시아에서 FAO 관개현대화사업의 교훈) 등 3개의 Keynote speech가 있었다. 이들 발표는 모두 관개용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관개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목적대로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관리되는 평범한 기술같지 않은 기술이지만 저개발국의 빈곤지역에서는 이마저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려주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농공기술자들의 관개기술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농공인은 이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아시아의 저개발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능력과 농공인의 활동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5월 2일의 오후에는 이란과 인디아의 관개역사와 시설(Qanat), 그리고 옛 선인들의 물관리 기술에 대한 발표, 참여관개의 참여방법과 시설 관리권의 이양에 관한 이란, 인도네시아, 터키, 파키스탄 등의 발표에 참여하였다. 5월 3일에는 관개의 관개역사와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세션 등에 참석하였다. 오후의 관개역사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내가 토론한 History 세션의 발표내용은 중동지역의 국가들이 자랑하는 Qanat(가나 혹은 카나)의 건설재료, 카나와 용수활용방법, 카나와 강우수확방법, 오래된 하천의 보(댐) 복원 방법, 남미의 관개수로, 그리고 스리랑카의 수자원개발문제 등이 발표되었다. 나의 토론은 시간이 많지 않아 두가지 점을 언급하였다. 첫째는 대형댐의 건설은 항상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대형 수자원개발의 부정적 효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대형댐 개발시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면까지 철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토론하였다. 둘째는 오래된 보의 복원시 가능하면 어도 등을 함께 설치하여 하천생태계의 단절을 막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시설로 복원하였으면 한다는 점을 토론하였다. History 세션에 참여하면서 그 동안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중동지역의 카나와 관개시설에 대하여 많은 점을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LDC 세션에서는 느끼는 점이 무척 많았다. LDC 세션의 주제는 "Affordable 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irrigation, drainage and flood control

schemes in LDCs and other countries in Asia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관개, 배수 및 홍수 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술의 적용방법)이었다. LDC 세션은 일본의 Taniyama 교수가 주관하고 있었다. 대학교수로서 정년퇴임을 한지 오래 되었지만 Taniyama 교수가 보여주는 열정과 정성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이고 아시아 농공학계의 큰 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원로 농공학자들을 생각해 보고 또한 나는 앞으로 과연 Taniyama 교수의 백분지 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했다.

저개발국가는 재원과 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매우 어렵다. 농촌지역의 빈곤해결을 위해서는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국가정책이나 혹은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도움으로 관개시설을 건설하여도 지역주민들이 이들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설의 유지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LDC 세션에서는 저개발국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방법, 관개시설의 규모와 효율성, 교육, 주민참여관리방법, 효과적인 물관리 사례 등이 발표되고 토론되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관개기술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저개발국가의 농업과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많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포화상태에 있는 농공기술자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있는 분야이고 또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생각했다. 선진화된 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빈곤국의 농업과

농촌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농공기술자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보았다.

5월 4일은 오전의 간단한 발표 후 11시부터 폐회식을 진행하여 12시 30분에 끝났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참여형 관개(Participatory Irrigation)로 우리나라나 일본의 관개방법과는 거리가 먼 주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개기술은 이제 외국에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단계가 아니라 외국의 낙후된 관개기술의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의 관개기술과 기술인력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기후, 농업, 문화적인 차이가 다른 저개발국의 관개방법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번 테헤란의 ICID 아시아지역 회의는 매우 유익하였던 회의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나라의 농공기술자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아시아지역 분과위원회의 모습